

1940년 부산학생항일운동의 재조명

-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

이상국* · 강대민**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산학생항일운동의 발단
- III. 부산학생항일운동의 전개
- IV. 부산학생항일운동 주동자의 처벌
- V. 부산학생항일운동의 독립유공 공적서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40년 11월 23일에 일어난 부산학생항일운동에 관련된 각종 연구 논문과 자료들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에 의문을 갖게 되어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항일학생들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 및 목격자들의 기억이 ‘축소·과장·왜곡·삭제·창조’ 등의 사유로 변경된 탓에 생긴 것들이었다.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부산의 항일학생 폭행사건을 다각도로 다루었다. 김의 환은 사건을 최초로 소개하였고, 강창석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사회적 여

*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1저자 / sglee4@dsme.co.kr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사학전공 공동저자 / dmkang@ks.ac.kr

건을 밝혔다. 김석희는 『부산동래고등학교사』를 바탕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전통과 계승된 항일사건들을 알렸으며, 강대민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김형목은 민족운동사상과 연계하였고, 김인호는 일본의 기만성과 민족 차별에 대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이재봉은 일본 작가가 쓴 소설 『1940년 부산』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다.

그러나 부산학생항일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산지역의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용맹스러운’ 투쟁을 강조하는 데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폭력적 항일투쟁의 물리적 성과보다는 부산지역 한국인들에게 깊이 잠재되어 있던 조국독립의 갈망을 일깨워준 정신적 파급성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부산학생항일운동은 일제의 국방경기대회에서 편파적인 심판 판정에 항거한 한국인 학생들이 군중심리에 편승하여 일으킨 단순하고도 우발적인 폭력사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일제가 자행한 한국인 차별에 대한 깊은 저항심이 순식간에 폭발한 것이다.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그 이후 부산지역에서 조선청년독립당, 친우회, 순국당, 무궁단 등의 항일투쟁 비밀결사대들의 자생적 결성과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지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고는 부산학생항일운동에 대한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이며 유일한 국·한문 혼용 일간지인 『매일신보』에서 발견한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 증언과 기왕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재조명하였다.

핵심주제어: 부산학생항일운동, 투쟁, 군중심리, 비밀결사대, 매일신보

I. 머리말

1940년 부산학생항일운동은 일제의 광포한 탄압을 뚫고 일어선 우리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비록 돌발적인 폭력사태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이후 부산지역 학생·청년세력의 항일운동에 단초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기

왕의 연구와 자료들의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수 발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 그리고 주동자에 대한 일제의 처벌과 광복 후 독립유공 공적서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의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식민지교육을 통한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우민화 및 황민화 정책을 통해 한국인들을 합법적으로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중등학생들에게도 군사 집체훈련을 강화 시켜 향후 대일본 제국의 군인으로서 일왕을 위해 기꺼이 영광스러운 목숨 바치기를 세뇌화 시켰다.¹⁾ 이런 와중에 부산지역에서도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군사교육이 중요 교과목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내선일체와 애교심을 앞세운 학교간의 군사훈련 경쟁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였다. 1939년에 부산에서 제1회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1940년에는 제2회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열렸다. 대회 성격은 일반적인 학생체육대회가 아닌 군사훈련을 모방한 대회이다 보니 경기규정도 조악하였다.

특히 제2회 국방경기대회에서는 심판관인 일본인 학교배속장교들이²⁾ 한국인 학교에 대하여 편파적인 경기판정을 함으로써 일본인 학교에 우승을 안겨 주었다고 판단한 한국인 학생들이 폐회식에서 일본인에 대해 폭행과 폭언으로 경기장을 이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야간에는 심판장인 학교배속장교 노다이 켄지(乃台兼治) 예비역 대좌(현재 계급은 대령-필자주)³⁾ 집으로 몰려간 한국인 학생들은 돌팔매질을 하

1) 김의환, 『부산근대교육사』, 태화출판사, 1967, 48쪽.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478쪽.

2) 학교배속장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사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일제는 각 학교에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를 배속하여 임명하였다. 그 목적은 학생들을 유사시 전쟁에 투입하기 위함이었다.

3) 『조선군 임시병참사령부 부산지부 진중일지』 극비 자료에 1940년7월18일(목)에 학교

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물리적으로 토해내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

일제의 내선일체 모순에 대한 순간적인 깨달음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잠재적 저항정신이 불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명칭들이 사용되어져 왔다.⁴⁾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할 명칭은 노다이 사건(乃台事件)이다. 이는 일본인 학교배속장교인 노다이 켄지(乃台兼治)의 성씨인 노다이(乃台)를 사건의 명칭으로 지칭함으로써 이 사건이 오직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폭행사건으로 착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의환은 이 사건을 최초로 소개하였고⁵⁾ 강창석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대 사회적 여건을 밝히는 등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⁶⁾ 김석희는 『동래고등학교사』를 바탕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 전통 및 계승된 항일사건들에 대해 연구하였고⁷⁾ 강대민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⁸⁾ 김형목은 민족운동사상과 연계하였으며⁹⁾ 김인호는 일제의 내선일체 기

배속장교 노다이 켄지에게 공무운임 할인증을 교부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 4) 해당 사건의 여러 명칭은 ‘노다이사건’, ‘내대사건’, ‘내태사건’, ‘부산공설운동장 학생의거’, ‘부산학생운동’, ‘부산학생사건’, ‘부산항일학생운동’, ‘부산학생항일운동’, ‘부산항일학생의거’, ‘11.23사건’ 등이 있다.
- 5) 김의환, 『일제하 부산의 학생항일 독립운동』, 『운병육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1990.
- 6) 강창석, 『1940년 부산 항일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노다이 사건을 중심으로-』, 『항일학생운동 재조명』, 2000.
- 7) 김석희, 『일제 말기 부산의 항일운동(소위 노다이 사건)』,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1992.
- 8) 강대민, 『부산항일학생운동의 과정과 계승』,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부산학생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근현대사론』,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부산학생항일운동 70주년의 역사적 의미』, 『부산항일학생의거 70주년 기념 전국학술세미나』, 2010. 『부산 항일학생의거(노다이사건) 구술 재검토』, 『한국근현대사론』, 봄길, 2014.
- 9) 김형목,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의 민족운동사상 의의』, 『부산항일학생의거 67주

만성과 민족 차별에 대한 비판의식, 본능적 애교심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¹⁰⁾ 이재봉은 일본 작가가 쓴 『1940년 부산』 소설 작품에 대한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다.¹¹⁾

그러나 기왕의 연구내용 중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첫째,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이다. “일제의 삼엄한 보도관제만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필연코 광주학생운동 이상으로 전국적으로 거족적인 항일 투쟁으로 유발 파급되었을 것이니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¹²⁾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기관지이며 국내 유일한 국·한문 혼용 일간지인 『매일신보』는 사건 발생 한 달 뒤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연속적으로 진행사항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당연히 일제 식민당국자의 의도와 입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발굴한 『매일신보』 기사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역사적 실상을 밝히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증언자들의 상충된 증언의 문제이다. 이는 상황별로 증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추론하였다. 일방적인 구술사에 편중된 자료는 오히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 사건에 관한 연구논문의 오류 문제이다. 선행 연구논문의 오

년 기념 전국학술세미나』, 2007.

10) 김인호, 「부산 11·23사건과 내선일체」, 『근대한국 지방사의 이해』, 신서원, 2006; 「부산 11·23사건, 민족과 항일의 울타리를 넘어서」, 『항도부산』 26, 2010; 「1940년 부산 11·23사건의 사회경제적 기초」,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2, 2012.

11) 이재봉, 「1940년, 부산의 식민성과 반식민성」, 『한국문화논총』 68, 2014.

12) 「1940년도 항일의거 부산학생사건(세칭 내대사건) 독립유공 공적서」, 1991.9.30. '6. 결문' 부분 발췌.

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음의 연구논문에서 또 다른 오류가 창조·재생산되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칫 객관적 사실조차도 의심케 하는 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상기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산학생항일운동의 실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부산지역 한국인들에게 과연 어떤 상징적 의미와 영향을 주었는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부산학생항일운동의 발단

1.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1940년 부산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11월 21일(목) 새벽부터 22일(금) 오후까지 1박 2일로 김해평야에서 중등학생 대상 야외군사훈련인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이 있었다. 기왕의 연구 자료와 문헌들은 이 훈련에서부터 부산학생항일운동의 불씨가 잉태되었다고는 하지만, 연관시키기에는 객관적 사실보다 증언자들의 주관적 주장이 강하였다.¹³⁾ 『매일신보』의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종료 보도내용을 보면 이 훈련에 대한 중등학생들의 적극성을 느낄 수 있다.

... 전략 ... 전투연습을 마치고 각 부대는 김해읍 한마루를 통과하는 가두에 정렬하여 산택 통감의 사열 아래 보무당당히 분열식을

13)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부산학생사건정사』, 아성출판사, 1967, 8쪽.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974, 1100쪽. ‘기왕의 자료들에는 험준한 산악지대는 조선인을 배척하고 고생을 시키며 야영시의 천막, 연료 배급의 차별, 강평(講評)의 부합리성 등 정신적 육체적인 박해를 지능적으로 수행하며 사사건건 궁지에 빠뜨리는 술책은 우리들의 반항심에 부채질하였고 우리들의 단결을 더욱 촉진 시켰던 것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거행하여 충후학도의 기풍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분열식이 끝난 후 산택 지사의 별항과 같은 고사와 내대 대좌의 강평이 있는 후 일반 읍민도 참가하여 화포 기총 등의 설명 발포연습을 견학하고 해산하였다.¹⁴⁾

본고에서는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이 훈련에 대한 사실적 현황만을 다루고, 부산학생항일운동과의 상관관계는 구분하였다

... 전략... 경남도에서는 부산중학(釜中) 부산제1상업(1商) 제2상업(2商) 동래중학(東萊中) 마산중학(馬山中) 진주중학(晋州中) 진주농업(晋州農)의 도내 7개 중학과 부산 동래 삼중정(三中井)의 세 청년 훈련소생 2천여 명을 참가시켜 연합대연습을 거행하기로 되어 산택(山澤) 지사를 통감(統監)으로 관구(關口) 내무부장이 막료장(幕僚長)에 내대(乃台) 대좌가 연습지도와 심판장이 되고 석정(石井) 학무과장 이하 학무과 직원, 각 학교교련과 직원과 기타 직원이 참가하여 예정과 같이 추수도 끝난 김해평야를 중심으로 산본 소좌(山本 少佐) 구정 중위(龜井 中尉) 지휘 아래 거행 되었다. ... 중략 ... 산본 대좌(소좌의 오기-필자주)가 지휘하는 동군대대가 구포역에 하차한 것은 오전 9시 30분경 ... 후략...¹⁵⁾

기왕의 자료들은 노다이 대좌가 총지휘관 겸 동군사령관으로, 산본 소좌는 서군사령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나¹⁶⁾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부대편성은 동군과 서군대대로 나뉘었고 공격역할의 동군대대 지휘관은 산본 소좌(현재 계급은 소령-필자주)가, 방어역할의 서군대대는

14) 『매일신보』 1940.11.24, 4면, ‘장하다 젊은이 의기-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처알’.

15) 『매일신보』, 위의 기사.

16)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8쪽.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4, 1100쪽.

구정 중위가 맡았고, 노다이 대좌는 연습지도와 심판장을 맡고 있었다. 이는 당시 참가 학생이었던 증언자들의 착각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참가학교도 경남 7개 학교 이외에도 부산 동래에 있는 삼중정(三中井)의 3개 청년훈련소¹⁷⁾를 포함하여 총 10개교가 참가하였다.

2.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

경남중등학교 연합대연습 다음날인 11월 23일 토요일은 일본의 축제일인 신상제¹⁸⁾ 공휴일이었다. 한편으로 부산공설운동장에서는 “제2회 경남남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대회는 일상의 운동경기와는 너무도 다른 ‘변태적인 무장운동경기’이고¹⁹⁾ ‘해괴한 국방경기’로서²⁰⁾ 일본인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에 항의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울분과 의분으로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폐회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매일신보』의 이틀 후 기사는 아무런 사건·사고도 없이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가 장엄하게 잘 거행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원 2천6백년 봉축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는 예정과 같이 23
일 오전 9시 반부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되며 참가교 도내 18 남
녀중등학교²¹⁾ 생도가 정렬을 지어 장엄한 입장식이 있고, 곧 경기에

17) 3개 청년훈련소의 정확한 명칭과 역할은 추후 연구과제로 다루도록 하겠다.

18) 11월 23일 신상제(新嘗祭)는 1948년 이전까지 일왕이 국민을 대표하여 농작물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으로, 일본 국가의 중요한 행사이며 공휴일이다. 1948년 공포·시행된 축일법에 의해 근로감사의 날(勤勞感謝の日)로 제정되었다(위키백과).

19) 『국제신보』 1964.11.24, ‘내대사건 진상은 이렇다’.

20) 동래고등학교 19기 동기회,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21) 진주중학, 마산중학, 동래중학, 부산중학(일본인 학교), 부산제1상(일본인 학교), 부산제2상, 진주농업, 울산농고 【이상 5년제 학교 8개교】, 동래고녀, 부산항고녀, 부산

들어가 모교의 영예를 걸머진 각 학교선수들이 열기를 전개하여 총 후학도들의 불타는 이기를 보여주었다.²²⁾

아수라장으로 끝난 국방경기대회를 『매일신보』는 학생들이 학교 영예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고 거짓 보도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해 보았다. 우선 일제는 부산학생항일운동이 구전으로 타 지역에 급속히 유포될 것으로 보고 먼저 거짓 보도를 통해 구전이 유언비어라고 인식 시켜야만 할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는 과거 광주학생운동처럼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인들이 거족적인 항일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황국신민으로서 전투력 배가를 위한 국방경기대회에서의 저항은 곧 식민지 지배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인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 시켜야 할 필요성으로 거짓 신문보도를 우선적 대책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Ⅲ. 부산학생항일운동의 전개

1.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 심판 판정문제 증폭

경남중등학교 국방경기대회에 참가한 경남도내 18개 남녀중등학교 중에서 한국인 학생이 대다수인 동래중학(현, 동래중학교와 동래고등학교의 전신)과 한국인 학생들만 있던 부산2상(현, 개성고등학교의 전

고녀(일본인 학교), 미시마고녀(일본인 학교) 【이상 4년제 학교 4개교】, 김해농고, 밀양농잠, 마산상업, 통영수고, 입정상업, 초량상업 【이상 3년제 학교 6개교】

22) 『매일신보』 1940.11.25, 4면, ‘연합국방경기회-경남의 18개 남녀중학생 합동, 23일 부산에서 장엄’.

신)이 중심이 되어, 심판관인 일본인 학교배속장교들의 편파적인 경기 판정으로 일본인 학생이 대다수인 부산중학(현, 부산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의 전신)에 우승을 안겨 준 것에 대한 폭력사태가 폐회식을 기점으로 발발하게 되었다.

기왕의 자료들에는 편파적인 심판이 대다수 종목에서 이루어졌고 주된 심판 판정문제의 경기 종목에 대하여는 다소간에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으나²³⁾, 『매일신보』의 공판 기사를 보면 2개의 종목이 주된 심판 판정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전략... 개정벽두 피고들의 연령, 주소, 경력 등을 물은 후 사건 발단의 경기종목 중 문제를 일으킨 담가경기(擔架競技), 비상소집경기(非常召集競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모양을 묻고 정오에 잠시 휴게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개정하였다... 후략... 24)

심판 판정시비의 발단이 된 두 종목 중에 첫 번째, 담가경기는 가마니로 만든 들것을 들고 100미터를 달리는 종목으로 부산중학팀이 경기 도중에 들것에 태우고 가던 사람이 떨어지자 재시합이 선언되어 재경기 결과 당초 1위이던 동래중학을 밀어내고 부산중학이 1위를 하게 되어 심판장에게 항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²⁵⁾ 두 번째, 비상소집경기는 하지만 입고 누워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빨리 일어나 달리면서 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무장하여 달리는 경기인데, 한국인 학교 학생들에 대해 복장미비라는 트집을 잡아 감점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⁶⁾

23)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내대사건 회상록-군봉 별책특집호』, 1964, 4쪽.

24) 『매일신보』 1941.1.28, 3면, ‘학생폭행사건-부산서 공판을 개정’.

25) 부산중·고등학교총동창회, 『부산고등학교 60년사』, 2005, 84쪽.

26) 강대민, 앞의 책, 2003, 191~193쪽.

이처럼 국방경기대회 경기 종목과 그 내용을 보면 경기 대회의 본질이 조약한 군사훈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 경기 종목 및 내용

경기 종목	경기 내용
100 미터	개인이 총을 가지고 달리기
400 미터 릴레이	4명이 한 조가 되어 총을 바톤으로 하여 달리기
80 미터 장애물	총을 들고 한 사람씩 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넓이뛰기	5명이 한 조가 되어 무장하여 넓이뛰기를 하는 것. 총접수로써 우열을 가림. 이때 총구멍이 땅에 닿으면 무효임.
높이뛰기	5명이 한 조로 무장한 상태에서 총만 가지지 않고 높이뛰기를 하되 대검이 빠지면 무효
턱걸이	5명이 한 조가 되어 철봉에 턱걸이 하는 것. 총은 가지지 않음.
수류탄 던지기	5명이 한 조가 되어 수류탄을 던지는 것.
토양(土壤) 운반	모래를 넣은 가마니를 짊어지고 달리는 것. 5명이 한 조가 되고 가마니 중량은 8관(30kg)
비상소급(소집)	바지만 입고 누워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빨리 일어나 달리면서 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무장하여 달리기
담가(擔架) 운반	5명이 한 조가 1인은 환자가 되어 담가에 실리고 넷이 달리기
중량물 들기	6관(22.5kg)짜리 역기를 많이 들어 올리는 횟수 경쟁
씨름	5명이 한 조로 구성
견인경주	큰 나무 널판 위에 모래 가마나 세 개를 싣고 5명이 한 조가 되어 긴 줄을 잡고 끌어당기기
줄 당기기	20명이 한 조가 되어 긴 줄 당기기
무장행군	20명이 무장하여 한 손에 긴 줄 하나를 잡고 2,000미터 마라톤 하기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002. 212쪽.

2. 부산공설운동장과 시가행진의 폭력사태

기왕의 자료들에 의하면 의분에 찬 한국인 학생들이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교사를 구타하고, 심지어 경찰과 헌병의 칼을 빼

어 부수어 버리고 빈사상태가 되도록 난타하였으며 1천여 명이 운동장을 박차고 나와 시가행진에 돌입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국인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교사들은 이를 만류하였으나 시위대는 점차 거친 행동을 일삼았으며 시가행진 중에는 일본인 상점의 선전등과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일본인에 대하여 돌 세례를 퍼부었다고 기술되어 있다.²⁷⁾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처음으로 기사화되어 전국에 알려지게 된 『매일신보』를 보면 부산중학교 배속장교 노다이 대좌²⁸⁾ 집에서만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간략한 내용만 보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기원 2천6백년 봉축 제2회 국방경기 대회에서 심판에 대한 불평이 있다고 하여 일부의 중등학생이 동요하여 심판장인 부산중학교 배속장교 내대 대좌 주택에서 생긴 (것에-필자주)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남도 경찰당국에서는... 후략...²⁹⁾

당시 사건 참가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일본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일

27)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앞의 책, 1964, 16~17쪽. 동래고등학교 19기 동기회,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28) 기왕의 자료들에는 노다이 대좌를 ‘현역 육군대좌, 부산병참(군수)기지사령관, 경남병사부장, 부산지구경비사령관, 경남지구위수사령관이면서 부산지역 중등학교 배속장교 총책임자로서 겸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 많은 직책을 맡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과거의 직책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부산병참기지사령관, 경남병사부장, 부산지구경비사령관, 경남지구위수사령관 등의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시 부산2상 4학년생인 김신아의 『문화와 신학-6. 노다이 대좌 사건 회고록』, 『기독교사상』, 2월호, 2006.에 따르면 “심판관이 노다이 대좌라고 하는 예비역으로 60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부산2상)와 일본인 학교(부산중)의 교련 배속장교였습니다.”라고 기고하였다. 노다이 대좌는 당시 경남지역 고위급 학교배속장교로 판단이 되며, 정확한 표현은 예비역 육군대좌 노다이 켄지 학교배속장교로 불리어져야 한다. 이는 일제 군인과의 싸움으로 과대 포장하기 위한 지나치게 왜곡된 표현이라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주석3)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매일신보』 1940.12.25, 4면, ‘심판폭행사건-일부 학생 작일 송국’.

제 경찰과 헌병을 크게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치안유지법 내지 군법 등의 큰 죄목으로 다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폭행사건으로 다룬 것은 한국인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시국 사건이 아닌 단순 소요 사건 정도로 축소·은폐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3. 심판장 노다이 대좌 집 습격사건

편파적인 경기 판정에 분노한 동래중학과 부산2상 상급학생들은 시위대를 이끌고 당일 야간에 영주정에 있던 노다이의 집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민족적인 차별에 대한 불만을 물리적으로 토해내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실체적 자료로서 부산2상 5학년 ‘이인희’의 학적부에 기록된 퇴학 사유가 가장 정확해 보인다.

소화 15년11월23일 경상남도 체육협회 주최 제2회 국방경기회 심판 불공평하여 칭(稱) 동래중학생도 본교생도 등 다수 같이 공히 배속장교 노다이 대좌 저(邸) 내에 침입하여 투석, 창(窓) 초자(硝子) 파괴하여 불온의 언사를 조알(弄)거렸다. 혹은 타의 선동하는 등의 행위로 검사국에 송(送) 보냈다. 유지(諭旨) 퇴학 퇴학일자 소화 15년 12월 27일³⁰⁾

퇴학사유의 핵심은 노다이 대좌의 집을 침입하여 기물들을 파괴하고 폭언을 퍼붓고, 또한 타 학생들을 선동하여 검사국에 기소되었다는 것이며, 부산공설운동장에서서의 소요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 동래중학 4학년인 ‘박순홍’의 증언은 이 사건이 크게 다루어지게 된 비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30)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전시관에 ‘이인희’ 학생의 학적부가 전시되어 있다.

“그때 노다이는 출정가족으로 외아들이 육군 중위로 북지전선(北支戰線)에서 전사하여 집안에 아들의 위패를 장치해 두었는데 그 위패마저 돌에 맞아 부서져 날아가서 노다이는 이 때문에 더욱 격분했다고 한다”³¹⁾

출정가족의 사택에 살고 있던 노다이 대좌는³²⁾ 중일전쟁에서 전사한 외아들 노다이 중위의 위패마저 파괴된 것을 보고 가해 학생들의 색출과 처벌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추정된다. 사건 당일 밤부터 가해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한 일제 경찰과 헌병은 다음날까지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검거하여 남서(현, 중부경찰서)와 북서(현, 동부경찰서) 그리고 수상서(현, 영도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되어 취조가 시작되었다.³³⁾

IV. 부산학생항일운동 주동자의 처벌

1. 경남경찰부장 담화문

『매일신보』의 부산학생폭행사건에 대해 ‘상야’(上野) 경남경찰부장(현 지방경찰청장-필자주)이 발표한 장문의 담화문을 살펴보면 일제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개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 전략 ... 당일 거행한 국방경기는 이 지방으로서 시작한지 일

31) 박순홍, 앞의 책, 1990.

32) 김신아, 앞의 책, 2006.

33)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앞의 책, 1964, 11쪽.

마 되지 않아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것과 다른 경기 등과 달라 전력(戰力)의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로서 단체적 훈련을 주안으로 하여 한 사람일지라도 반칙자가 있는 때는 점수를 감하는 등, 그 채점방법에 극히 복잡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판정이 각 선수 응원하는 생도, 일반 관중에게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아 판정에 대한 의문이 직접원인이 되며 이러한 불상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 후략 ... 34)

한국인 학생들이 심판 판정에 불평을 가진 것에 대한 이유로는 이번 국방경기대회가 2회째로 인해 경기 규칙이 생소하며 복잡하고, 경기의 인식이 부족하여 다른 경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이 경기가 규칙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한국인들이 여태껏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경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전략 ... 본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무도(武道)를 비롯하여 어떠한 운동경기에서도 심판은 절대로 신성하다 하여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가부논의를 함과 같은 것은 도리어 남아의 치욕으로 여기고 불평만을 들추어 이에 복종하지 않음과 같은 절대로 용서 되지 않는 것이요, 일방 심판의 임의 당하는 자도 역시 부양천지하여 부끄럽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하여 오는 것이다. 상술한 견지에서 금회 생도가 다수 외함을 빌려서 한 폭력행동은 너무도 상궤(常軌)를 벗어나고 학생의 본분을 몰각하였음은 물론 시국을 분별하지 못한 행동으로 거듭 되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후략 ... 35)

그리고 심판의 판정에 불복한다는 것은 일본인으로서서는 상상도 하지

34) 『매일신보』 1940.12.28, 4면, '시국을 모르는 행동-경남경찰부장 담(談)'.

35) 『매일신보』, 위의 기사.

못할 일이고, 남자의 수치로 여긴다고 하여 한국인이 무식하고 야만적이라는 것을 비꼬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신분으로 비상시국에 본분을 망각한 것에 대한 훈계를 덧붙이고 있다.

... 전략 ... 그 동안 각 학교 당국과 (학)부형 측에서도 이 사건의 전후 조치에 관하여 잘 관계 청국과 협조 선처한 것은 본직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나 시국은 점점 중대하여 내선 일반 민중은 잘 내선일체의 당국 시정방침을 떠받아 각각 총후의 지성을 피력하고 있는 이때 장래 국민의 중핵(中核)이 될 청소년 학도의 훈육에는 가장 계신(戒愼)을 요할 바 있음으로 ... 후략 ... 36)

또한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 처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 자식의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들은 일제 경찰의 조사에 외형적으로는 협조를 해주었으리라 여겨진다.

... 전략 ... 금후도 이 사건에 관하여 공연히 단마역측(揣摩臆測)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하고 또는 무책임한 비판언동을 함과 같은은 관계자이던 안이던 불고하고 일반에 연계하여 끝까지 당국의 조치에 신뢰 협력하고 일층 학교 기타 관계 방면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다 같이 금후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건을 일으켜 전도유위한 청소년 학도의 장래를 암담케 함과 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심심한 노력을 원하는 바이다.³⁷⁾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내선일체의 시정방침을 잘 따라주고, 청소년 학생들을 잘 훈육하기를 당부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억측이나 유언비어, 비판 언동에 대하여는 엄벌할 것이라 밝히고는 있지만, 내면적

36) 『매일신보』, 앞의 기사.

37) 『매일신보』, 위의 기사.

으로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민중의 소요사태를 걱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부산지방법원 검사국 송치

1964년 11월 23일 11시에 동래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있던 사건 관련자와 재학생과의 대담인 『좌담회 내대사건을 회상하면서』에서는 구속 학생이 동중 8명, 2상 6명으로 모두 14명으로 속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병주의 소설 『관부연락선2』에서는³⁸⁾ “주모자급으로 동래중학생 4명, 부산이상 학생 6명이 부산지방 검사국으로 구속 송청되었다”라고 하여 10명으로 쓰여 있다.

... 전략 ... 동래중학(東萊中學)과 제2상업학교의 일부 생도들이 심판장 내태(乃台) 대좌 주택을 습격한 폭행사건은 그 동안 부산경찰서에서 취조를 마치고 검사국으로 송국 되어, 그 중 15명이 기소되었는데 ... 후략 ... ³⁹⁾

그러나 『매일신보』 기사와 같이 구속 기소자는 모두 15명이며 동래 중 9명, 부산2상 6명으로 밝혀져 있다. 이는 증언자들의 기억의 오류에 의한 착각으로 여겨진다.

... 전략 ... 경남도 경찰당국에서는 이에 관계 학생을 취조 중이든 바, 취조도 일단락이 되었으므로 24일 일부 소수자를 구속으로 기타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⁴⁰⁾

38) 이병주, 『관부연락선』 2, 한길사, 2006.

39) 『매일신보』, 앞의 기사(1941.1.28. 3면).

40) 『매일신보』, 앞의 기사(1940.12.25. 4면).

보도에 의하면 한국인 학생을 15명씩이나 구속 시킨 큰 사건을 일부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간 수많은 한국인을 구속시킴에 있어 일제의 잔혹한 민족적 탄압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다. 더불어 기타 불구속으로 송치된 나머지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판결문이나 자료 그리고 구술 증언 등을 찾지 못하여,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다루도록 하겠다.

1) 기왕의 연구논문에 나타난 『동아일보』 출처 오류

해당 사건의 연구논문과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 예기치 않게 『동아일보』 1940년 12월 28일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⁴¹⁾ 그러나 1940년 8월 10일부터 1945년 11월 30일까지 일제에 의해 폐간되어 동년 12월 1일에 중간(重刊)이 된 『동아일보』가 어떻게 그 날짜에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 어디에서도 『동아일보』 기사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당시 사건의 보도 자료라고 첨부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동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다.

釜山公設運動場에서 개최되었던 소위 第2回 慶南學徒戰力增強國防競技大會의 開會式에 參加하였던 釜山第二商業學校와 東萊中學生들은 國防競技大會가 日本人 審判陣의 不當한 處事로 日本人 學校가 優勝을 차지한데 分개하여 抗議를 제기하다. 閉會式 마지막 순서로 日本旗가 下降하자, 韓國人 學生들은 日本國歌 대신에 「아리랑」을 제창하였으며 兩校生 1천여명은 市街行進을 行하였다. 이들 示威學

41)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2, 1972, 556쪽.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994. 김선갑, 김인규, 안장원, 이달희, 정두열, 이도윤, 이병도, 이세기 애국지사의 개별 공훈내용 참조. 김인호, 앞의 논문, 2006, 216~217쪽, 앞의 논문, 2009, 21~22쪽. 이재봉, 앞의 논문, 2014, 523~525쪽.

生들은 當時 禁止曲이었던 「황성옛터」 「아리랑」 「양산도」 「도라지」 등의 노래를 高唱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일본놈 죽여라」 「무엇이 內鮮一體냐」 「무엇이 東亞의 盟主냐」 「너희들은 日本으로 돌아가라」 등을 절규하였다. 그리고 學生들은 同大會 審判長이며 慶南地區 衛戍司令官 釜山地區 兵站司令官 釜山市內中等學校 敍속장교 총책 임자인 日本軍大佐 乃台兼治의 官舎를 습격하여 관사를 파괴하고 乃台를 구타하다. 이날 일경과 헌병들이 출동하여 약 2백 명의 학생을 체포하다. 동사건으로 처벌된 학생은 다음과 같다.

징역 1년~8월 : 김인규 金麟圭 김영조 金榮照 김명수 金明洙 이달희 李達熙 이도유 李道胤 안장원 安長遠 정두열 鄭斗烈 추기복 秋遺腹

징역 8월[3년집유] : 김종배 金鍾培 이인희 李仁熙 김재한 金在漢 홍병희 洪秉喜 이병도 李丙燾 김고갑 金鍠甲 이세기 李世基⁴²⁾

그런데 상기의 인용 기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 우선 보도 기사의 실체가 의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가 폐간된 상태에서 해당 기사가 어떻게 보도를 할 수 있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해당 사건이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검사국에 이제야 사건이 송국되었는데, 어떻게 재판의 결과를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광복 이후의 신문기사 또는 자료의 게재일자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빚어진 오류라고 생각되어진다.

2) 오류 자료의 재생산 문제

연구논문에서 김인호는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중학생들이 항일구호를 외쳤다는 것에 대해 “그들의 구호를 보면 11·23사건의 역사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또한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

42) 『동아일보』 1940. 12. 2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termId=su&setId=307315&position=0> (검색일 : 2015.3.26.)

사라는 집에서 신빙성이 높다”라고⁴³⁾ 부연설명을 하였다.

이재봉 역시 이 기사를 “비록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여기서 당시 유일하게 이 사건의 경과를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사는 충분히 참고할만하다”라고 인용하며, 이어서 당시 중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에 대해 “사건이 경과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⁴⁴⁾ 기술하고 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동아일보』의 보도 날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인용자들의 소홀한 연구가 이런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역사적 오류와 왜곡에 대한 정정은 바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부산학생항일운동의 향후 연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용이 되고 또 재인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부산지방법원 공판

1) 제1회 부산지방법원 심리공판

구속 기소된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1심 공판은 부산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매일신보』에 보도된 제1회 공판에서의 법정 관계자들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1회 공판은 27일 오전 열 시부터 부산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복포(福浦) 부장, 송량(松良) 검사 입회로 개정 되었다. 이날 방청석에는 학부형과 학교관계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는 만원을 이루었고 특별방청석에는 좌등(佐藤) 진해요항부법무관, 송야(松野) 학무부장(學務部長)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피고 측 변호인은 근등(近藤), 삼촌

43) 김인호, 앞의 논문, 2006, 216~217쪽, 앞의 논문, 2009, 21~22쪽.

44) 이재봉, 앞의 논문, 2014, 523~525쪽.

(杉村), 삼전촌(三田村), 김산(金山)의 네 변호사이었다.⁴⁵⁾

특이한 사항은 특별방청석에 ‘좌등’(佐藤) 진해요항부 법무관이 참석
한 것이다. 이는 일제 스스로 이 사건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반
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 재판에 일본군 법무관이 참관한 것을 보면
국방경기대회가 단순한 학교간 행사가 아니라, 주권 자체가 교육당국이
아닌 군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군법으로 다룰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공판부터는 일
본군 법무관의 참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하여
일반 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일본인 3
명, 한국인 1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합동변론을 한 것을 보면 당
시 피고 학생들의 가정이 대다수 중산층 이상의 상당히 부유한 형편이
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2회 부산지방법원 심리공판

제2회 공판은 사실 심리로 폭력행위처벌사건으로 한정되어 진행되
고 있음을 『매일신보』는 보도하고 있다.

... 전략 ... 폭력행위처벌사건에 관한 제2회 공판은 29일 오전 열
시부터 부산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복포(福浦) 부장, 상량(相良) 검
사 입회 아래 열리었는데 이날 방청석에는 각 중등학교 교장, 직원,
관계 학부형, 경찰관원 등으로 만원을 이루어져서다. 사실 심리에 들
어가서는 전변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자세한 취조
를 한 후 정오에 잠시 휴게 하였다가, 오후 한시부터 다시 사실심리를
계속 하였는데, 동 네 시에 심리를 전부 마치었다. 오늘 30일은 ... 중
략 ... 네 변호인의 변호가 있는 다음 구형을 하게 될 모양이다.⁴⁶⁾

45) 『매일신보』, 앞의 기사(1941.1.28. 3면).

사실 심리는 많은 방청객과 증인신문 등으로 5시간에 걸친 긴 공판이었다. 그리고 다음 제3회 공판에서는 변호사들의 변론과 더불어 검사의 구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문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공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3) 제3회 부산지방법원 결심공판

기왕의 자료를 보면 검사 구형은 징역 1년이 6명(주모자), 징역 8개월이 9명이라고 되어 있으나,⁴⁷⁾ 『매일신보』의 제3회 공판 기사는 징역 1년이 4명, 징역 8개월이 11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전략... 제3회 공판은 30일 오전 열시부터 부산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복포(福浦) 재판장, 주심에 상량(相良) 검사 임회로 개정되었는데 검사의 준열한 논고가 있는 다음 최고 징역 1년으로부터 최저 8개월의 각각 구형이 있어서 1년 징역이 네 명, 8개월이 열한명이다 ... 후략... 48)

검사 구형에 대하여는 『매일신보』 보도의 신뢰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예나 지금이나 형량 자체를 기자가 왜곡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증언자들은 피고 학생들 중에 주모자를 다소 과장하고 싶었던 잘못된 기억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제3회 공판에 대한 보도가 있는 다음 날 『매일신보』에 연속적으로 공판 언도일지를 보도하면서 재차 검사의 구형을 알리고 있다.

... 전략...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상량(相良) 검사로부터 15명에

46) 『매일신보』 1941.1.30, 4면, ‘금일구형하기로-부산학생폭행공판’.

47)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 앞의 책, 1964, 7쪽.

48) 『매일신보』 1941.1.31, 3면, ‘최고로 1년역-폭행학생체형구형’.

게 최고 1년 최저 8개월의 구형을 하였는데 그 인도는 오는 2월12일 이라고 한다.⁴⁹⁾

검사의 무거운 구형을 두 번씩이나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일제에 항거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관용보다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인들을 협박하는 술책이었다. 아울러 인도일자를 알려 그 결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와 궁금증을 높이고자 한 일제의 기만적 전략을 느낄 수가 있다.

4) 제4회 부산지방법원 선고공판

부산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1941년 2월 12일에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15명의 학생들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인도) 받았다. 이에 대한 『매일신보』의 보도 내용은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

... 전략 ... 전범에 피고에 대하여 금고 1년과 팔월 구형이 있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바 있으나, 그 인도공판이 12일 오전 열한시 부산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복포(福浦) 재판장, 주심 상량(相良) 검사관 여하에 열리었는데 재판장은 피고에 일률로 금고 8월을 인도하는 동시에 일부에게는 금고 8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인도하여 이들은 검사의 상고가 없으면 12일 저녁에라도 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⁵⁰⁾

제3회 결심공판 보도에서는 검사 구형이 징역형이었으나,⁵¹⁾ 제4회 선고공판에서는 검사 구형이 금고형으로⁵²⁾ 바뀌어 있다. 이와 관련된

49) 『매일신보』 1941.2.1. 4면, ‘학생폭행사건-2월12일 인도결정’.

50) 『매일신보』 1941.2.13. 2면, ‘학생폭행사건-전부에 금고8월 인도’.

51) 형무소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하는 것.

52) 형무소에서 복역하며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것.

자료는 찾지 못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뚜렷한 주모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는⁵³⁾ 증언을 바탕으로 12명에게는 금고 8월형과 3명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 되었다. 이에 대해 기왕의 모든 자료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김종배, 김재한, 이인희는 미성년자로서 당시 법률이 18세를 형사적 성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성년 피고 학생들을 알기 위하여 여러 자료에서 수집된 인적사항을 <표 2>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2> 부산학생항일운동 피고 학생 1심 선고 현황

(성명 가나다 순)

순번	성명	생년월일	나이	출신학교	학년	1심 선고(부산지방법원)
1	김명수	-	-	동래중학	5	금고 8월
2	김선갑	1921.09.29.	19	부산2상	4	금고 8월
3	김영조	-	-	동래중학	5	금고 8월
4	김인규	1922.08.22.	18	동래중학	5	금고 8월
5	김종배	-	-	부산2상	3	금고8월, 집행유예3년
6	김재한	-	-	동래중학	3	금고8월, 집행유예3년
7	안장원	1924.01.09.	16	동래중학	5	금고 8월
8	이달희	1920.09.27.	20	동래중학	5	금고 8월
9	이도운	1923.08.24.	17	동래중학	5	금고 8월
10	이병도	1923.05.11.	17	부산2상	5	금고 8월
11	이세기	1923.10.23.	17	부산2상	4	금고 8월
12	이인희	1924.03.24.	16	부산2상	5	금고8월, 집행유예3년
13	정두열	1922.12.27.	18	동래중학	5	금고 8월
14	추유복	-	-	동래중학	5	금고 8월
15	홍병희	-	-	부산2상	5	금고 8월

해당 도표는 내대사건회상록과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음.

53) 김영조, 『좌담회 내대사건을 회상하면서-군봉 별책특집호』, 1964, 28쪽.

그러나 <표 2>처럼 생년월일이 확인된 피고 학생 중 추가 미성년자는 안장원, 이도운, 이병도, 이세기 등의 4명이 더 있으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선고 결과에 대해 훗날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류로 판단이 된다.

4. 대구복심법원 공소심 공판

대다수 피고 학생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들은 감옥에 있는 자식을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1심의 금고 8월 형량 선고가 억울하다고 대구복심법원에 피고 학생 12명 모두가 공소심(현재의 항소심-필자주)을 신청한 것을 보면 항일운동에 대한 기개가 다소 약해 보일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은 1심 재판의 형량이 많다고 하여도 공소할 집안적 형편도 안되었고, 일제에 대한 저항심에 그냥 형량을 받아들이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이 사건의 대구복심법원 공소심 선고공판에 대한 『매일신보』의 보도에 있어 주목하여야 할 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

... 전략... 작년 가을 부산에서 운동경기 중 심판관에 대해서 불상사를 일으킨 동래중학생에 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공소심 언도공판은 7일 아침 열 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1호 법정에서 추전(秋田) 재판장, 주심 촌전(村田) 검사 입회하에 개정하고 재판장으로부터 피고 한 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수명에게는 징역 8개월(미결 통상 60일)로 원심대로 언도를 하였다... 후략... 54)

54) 『매일신보』 1941.6.8. 3면, ‘부산학생사건-원심대로 공소언도’.

첫째, 2심 재판부는 피고 학생 한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1명은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무죄 석방된 추유복은 당시 동래중학 5학년으로 유복자이고, 부산 범어사의 장학금으로 수학하는 딱한 사정을 알고는 위증이 형무소 내외의 학생들 간에 성립되어 현장 검증을 거쳐 수급 주모자를 무죄 방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⁵⁵⁾ 그리고 1991년 9월 30일에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부산학생항일운동 주동자들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자료 『단체 포상 공적서』에도 추유복에 대하여 “구속자 11명 전원이 소재를 위증하여 무죄 석방 시켰다는 우정 어린 미담을 낳기도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 학생이었던 김영조의 증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2심에서 동중 8명중 한사람이 급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으로서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행동은 저희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 그대로 유복자이기에 우리 전부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당시 동경에 유학중인 장종기(당시 동래중학 5학년, 노다이사건 정학자)군과도 연락해서 무죄로 석방 시키겠끔 허위 증언을 만들고, 그래서 2심에서도 12명 모두 8개월 언도(구형의 오기-필자주)를 받았으나 선고판결에 있어서는 추유복 군만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⁵⁶⁾

이 증언을 대구복심법원의 판결과 교차 분석하여 보면 추유복은 이 사건의 핵심에서 다소 빗겨 나가는 것 같다. 일제 경찰의 취조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수급 주모자가 된 5학년 급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에 대해 2심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장검증을 한 것은 아닐까하는

55) 안장원, 『내대사건 회상록-군복 별책특집호』, 1964, 11쪽.

56) 김영조, 앞의 책, 1964, 28쪽.

생각이 된다. 그리고 감옥 내에서 간수와 다른 수형자들의 감시를 피해 피의 학생들 간에 단합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결국 추유복은 이 사건에 관여 되지 않았고 억울하다는 것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하여 무죄 방면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동료 학생의 석방에 대하여 추후에 이를 우정 어린 미담사례로 창조하여 사건의 이상화(理想化)한 차원에서 서술되고 기록되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 전략... 언도를 마친 후 재판장은 피고들에 대하여 약 한 시간에 거쳐 “피고들은 나이 어린 학도로서 그 장래에 대하여 동정하는 바이나 법을 범한 이상 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앞으로는 반성 회개하여 국가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사부(師父)와 같이 친절한 훈계가 있어 방청자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하였다. ... 중략... 피고들의 진정서를 통하여 피고들이 군중심리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것과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 중략... 피해자가 피고들의 교관이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종래 동양에서 일곱 자 떨어져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피고들은 그 스승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것이다. ... 중략... 또한 피고들은 애교심과 군중심리에서 그리하였다 하지만 한 것이 너무나 도를 지나쳤으므로 여기에 원심으로 판결을 내리며 동시에 깨끗이 잘못을 뉘우쳐야만 할 것이다.⁵⁷⁾

둘째, 대구복심법원 재판장이 교관이며 스승인 노다이 예비역 육군 대좌에 대하여 제자로서의 스승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1시간에 거쳐 친절한 훈계를 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이다. 훈계에 대해 피고 학생과 방청인은 머리를 숙여 받아들였다고 하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57) 『매일신보』, 앞의 기사(1941.6.8. 3면).

지금껏 알고 있던 용맹스러운 항일투사 학생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한편으로는 학생의 신분으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감옥 생활에 대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고 학생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애교심과 군중심리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것과 자기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제는 공판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사건을 스승에 대한 패륜적 단순폭행사건으로 피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각인 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후일 이 사건의 파장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자극하여 확산이 된다면 견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제의 법정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의 우월성과 공포감을 함께 보여주었다.

V. 부산학생항일운동의 독립유공 공적서

부산학생항일운동으로 인한 수행자들에 대해 기왕의 자료들은 김선갑은 부산형무소에서 형기만료 출옥 후 2주 만에, 김명수는 1개월 만에 순국하였다고 쓰여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보훈처에 제출된 독립유공자 「단체포상공적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형(刑) 복역 중 11명은 출옥 시까지 사상범 취급으로 독방에 감금되었으며 또한 출옥 후 김선갑(부산2상)은 2주만에 김명수(동래중)는 1개월만에 그간의 옥고로 인해 순국의 지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부산학생항일운동 공로로 독립유공 건국훈장 수훈자 8명의 『국가보훈처 공훈록』의 기록과 증언을 살펴보면 김선갑과 김명수의 사

망시기가 틀림을 알 수 있다. 출옥 2주 만에 순국하였다고 한 김선갑은 출옥 8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서훈을 받지 못한 김명수는 해방 직후 사망하였다고 동료 수형자 김영조는 증언하였다.⁵⁸⁾

<표 3> 부산학생항일운동 건국훈장 수훈자 현황

(훈격, 소속학교 순)

순번	성명	생존기간	생존 나이	출신학교	건국훈장 훈격 (등급)	당시 나이
1	김선갑	1921.09.29.~1942.04.05.	21	부산2상	애국장 (4등급)	19
2	김인규	1922.08.22.~1996.11.04.	74	동래중학	애족장 (5등급)	18
3	안장원	1924.01.09.~1971.02.19.	47	동래중학	애족장 (5등급)	16
4	이달희	1920.09.27.~1994.03.15.	74	동래중학	애족장 (5등급)	20
5	이도운	1923.08.24.~2013.02.25.	90	동래중학	애족장 (5등급)	17
6	정두열	1922.12.27.~2003.01.31.	81	동래중학	애족장 (5등급)	18
7	이병도	1923.05.11.~1991.11.21.	68	부산2상	애족장 (5등급)	17
8	이세기	1923.10.23.~1976.01.03	53	부산2상	애족장 (5등급)	17

해당 도표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음.

또한 대구복심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11명에게 ‘미결 통상 60일’을 형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면 부산지방법원의 1심 선고일이 1941년 2월 12일이므로 1940년 12월 14일부터 형기가 시작되고 1941년 8월 14일에 형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수형 학생들 중 일부는 한결같이 1년여 개월의 옥살이를 하였다고 하거나, 2심 재판이 끝난 뒤 대구 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되어서 이듬해 출옥했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⁹⁾ 『회상록-내대사건의 진상』에서도 “제2심의 구형은 12명 전원 제1심과 같은 8개월에 결심공판에서는 전술한 추유복만이 무죄로 나머지

58) 김영조, 앞의 책, 1964, 29쪽.

59) 김영조, 앞의 책, 1964, 28쪽.

11명 전원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그 이상 법정 투쟁을 하여 보아도 군국주의자들의 특별지령이니 어찌할 수 없음을 단정하고 유죄판결 11명중 10명은 실형을 받기로 각오하고 상고를 포기하였고 김인규 1명만은 고등법원(지금의 대법원-필자주)에 상고하였던 바 기각되어 11명 전원이 8개월을 복역하였던 것이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⁶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피고 학생들은 기억의 과장을 통해 형량을 높임으로서 오히려 항일의 투쟁성을 더 높이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사건 관련 학생들의 회고록(회상록)을 보면 경찰서 취조 때던, 형무소 때던 항상 고문과 독방 수감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소 과장·왜곡된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부산의 독립운동가 이광우의 증언이 사실에 더 부합됨을 알 수 있다.⁶¹⁾

“... 전략 ... 나는 치안유지법 위반 사상범으로 체포 되어 경상남도경찰부 유치장, 부산형무소, 김천소년형무소 등에서 3년 가까이 수형생활을 했지만 독방에는 수감되지 않았다. 독방은 아무나 수감 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일제 법원은 미성년자라고 하여 결코 봐주는 경우가 없었다. 나도 만17세 미성년자였지만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3년형을 언도받았다. ... 중략 ... 일제 경찰의 고문은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가해지는 악행으로 단순한 사건의 취조에서는 고문이 아닌 폭언과 폭행이 자행된다. ... 후략 ...

이제는 잘못된 기억 또는 왜곡된 기록들이 각종 자료와 문집들에 인용 및 재인용 되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역사적 사실이 일부

60)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앞의 책, 1964, 7쪽.

61) 1942년 부산 친우회사건 총책, 2000년 건국훈장 애족장 수훈 애국지사, 1998.10.5. 추석날 자택에서 녹취.

라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정한 사실조차도 의문시하게 되고, 또한 경시 받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직도 독립유공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 부산학생항일운동의 수행자들에 대한 공훈이 조속히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일제 감옥에서 함께 고초를 겪었던 한국인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집대성 되어지는 날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VI. 맺음말

부산학생항일운동은 여러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과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지나친 애교심과 학교사의 포장에 얽매어 역사의 축소와 과장·왜곡 그리고 삭제와 창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관련 연구논문들과 각종 자료, 언론보도 등에서 항일운동의 미시적 역사연구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용맹스러운 독립투사를 원하는 시대적 경향에 따라 거시적 관점에서 서술을 하다 보니 정신적 파급효과보다는 물리적 투쟁성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거시적 접근은 해당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폭력과 폭언 등을 미화·과장·왜곡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기왕의 글들에서는 부산학생항일운동이 광주학생항일운동보다도 더 큰 항일적 파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으나, 당시 일제의 삼엄한 언론 보도관제로 타 지역에 알려지지 못하였다는 증언자들의⁶²⁾ 주장과 이를 수용한 연구논문들의 결론은 다소간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초창기

62)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연구논문 및 자료들에서의 인용의 오류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용 및 재인용 등의 과정을 거쳐 버젓이 재생산·정론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잘못 인용되었거나 해석되었던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그것들의 규명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부산학생항일운동을 재조명하여 보았다.

조선총독부 및 일제의 관료집단들은 당시 부산학생항일운동이 가져올 향후 거대한 항일의 물결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항상 멸시하였고 ‘미천하고 무지하고 순종적인’ 미개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중등학생들의 항일정신에 대한 깨우침과 더불어 폭발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제가 내어놓은 최선의 대책방안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연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축소·왜곡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인들이 이 사건으로 혹시나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항일과 독립의 정신을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술책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제는 이 사건의 사법적 조치를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하였다. 한 달 만에 일제 경찰의 취조를 통해 15명의 한국인 학생을 구속 시켰으며, 검사국 기소로부터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어서 대구복심법원의 항소심 재판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 되었다.

일제는 재판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피고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와 사상범 등에게 적용하였던 ‘치안유지법 위반행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 시켜, 이 사건을 한국인 불량 학생들의 폭행사건 또는 사제지간의 패륜행위로 변질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부산학생항일운동에 참여한 1천여 명의 학생들조차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항일정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부산지역의 학생·청년들은 향후 자생적 항일활동으로 조선청년독립당⁶³), 친우회⁶⁴), 순국당⁶⁵), 무궁단⁶⁶) 등의 비밀결사대를 결성하여 일제를 놀래게 만들었다. 부산학생항일운동은 부산지역의 연속적 항일투쟁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앞서 제시한 각종 자료들과 증언들을 정제하고 다듬어 그 진실을 다시 재조명하여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학생항일운동의 핵심 과급 성과인 부산지역 한국인들의 진정한 조국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만들어낸 부산의 비밀결사대들에 대한 항일운동을 자랑스럽게 내보여 주어야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저서

강대민,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강대민, 『한국근현대사론』, 봄길, 201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1권, 199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4권, 2000.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2, 1972.

김의환, 『부산근대교육사』, 태화출판사, 1967.

동래고등학교18회 졸업생일동, 『내대사건 회상록-군봉 별책특집호』, 1964.

동래고등학교 19기 동기회, 『망월회상록』, 문성출판사, 1990.

63) 김의환, 『동래중출신 조선청년독립당사건』, 『부산근대교육사』, 태화출판사, 1967.

강대민, 앞의 책, 2003. 203~205쪽

64) 국가보훈처, 『이광우 애국지사』, 『독립유공자공훈록』 14, 2000.

65) 강대민, 앞의 책, 2003, 206~212쪽. 조선청년독립당의 세포당 역할.

66) 국가보훈처, 『부산의 항일 비밀결사대』, 『독립운동사』 9, 2004, 816~817쪽.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974.
부산중·고등학교총동창회, 『부산고등학교 60년사』, 2005.
부산학생사건정사편찬위원회, 『부산학생사건정사』, 아성출판사, 1967.
이병주, 『관부연락선』 2, 한길사, 2006.
정세현,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2. 논문

강창석, 「1940년 부산 항일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노다이 사건을 중심으로-」 『항일학생운동 재조명』,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2000.
국가보훈처, 「부산의 항일 비밀결사대」, 『독립운동사』 9, 2004.
김석희, 「일제 말기 부산의 항일운동(소위 노다이 사건)」, 『부산학생항일의거의 재조명』, 1992.
김의환, 「일제하 부산의 학생항일 독립운동」, 『윤병욱교수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사업사, 1990.
김인호, 「부산 11.23사건과 내선일체」, 『근대한국 지방사의 이해』, 지식사업사, 2006.
_____, 「부산 11.23사건, 민족과 항일의 울타리를 넘어서」, 『향도부산』 26, 2009.
_____, 「1940년 부산항일학생운동의 민족운동사상 의의」, 『부산항일학생의거 67주년 기념 전국학술세미나』, 2007.
이재봉, 「1940년, 부산의 식민성과 반식민성」, 『한국문학논총』 68, 2014.

3. 자료

『조선군 임시병참사령부 부산지부 진중일지』 『매일신보』 『동아일보』 『국제신보』

| Abstract |

A Reillumination of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in 1940

Lee, Sang-Gug · Kang, Dae-Min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about the discrepancies among various kinds of materials for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which had been occurred at Busan in 1940.

These was caused by 'reduction, overstatement, distortion, deletion and creation' of the memories of related people, witnesses, and residents on that time about the event.

In the meantime, many scholars analyzed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in multiple angles. E. H. Kim introduced this event for the first time and C. S. Kang revealed the social conditions at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event. Based on the history of Busan Dongrae High School, S. H. Kim studied the fundamental tradition and the successive anti-Japanese events that led to the birth of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D. M. Kang analyzed and evaluated the event with various perspective. The researcher H. M. Kim analyzed the event in connection with the ideology of national movement, and I. H. Kim made a new interpretation on the deceitfulness and national discrimination of Japan from the socio-economic point of view. J. B. Lee logically refuted the fictitiousness of a novel written by a Japanese author, 『Busan, 1940』.

However, most studies of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have a biased aspect toward students' courageous struggle.

This study offers in-depth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ripple effect

awakened Busan people's aspiration for independence of the country, rather than the violent struggle of this event.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was never are not accidental assaults committed by students in a mob psychology. That exploded the deep resentment of discrimination conducted by Japan against Korea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ven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secret associations increased in Busan.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solely on objective facts, by comprehensively comparing and analyzing 『Maeil Shinbo』 newspaper articles, testimonies, and also many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event.

Key word: Busan Anti-Japanese Students' Movement, struggle, mob psychology, secret associations, Maeil Shinbo